

제3차 「디지털금융 협의회」 모 두 말 씀

2020. 10. 21.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손 병 두

상기 자료는 보도의 편의를 위해 제공해 드리는 것으로서
실제 발언내용은 동 자료와 다를 수 있습니다.

I. 인사말씀

안녕하십니까.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손병두입니다.

지난 9월 「디지털금융 협의회」를 출범하고
어느덧 세 번째 회의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열의를 가지고 논의에 임해 주시는
여러 위원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3차 디지털금융 협의회」에서는
작년말 출범한 이후에
대표적인 지급결제 혁신사례로 자리잡고 있는
“오픈뱅킹” 시스템을
한층 더 발전시키기 위한
정책방향에 대해 논의·결정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빅테크, 핀테크 기업들이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에 대해
그간 실무회의 등을 통해 파악한 내용을 소개드리고,
디지털금융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 방향을 토의하는 시간도 갖겠습니다.

II. 오픈뱅킹 고도화 방안

“오픈뱅킹”은

금융회사 등이 보유한 고객의 계좌정보를
참여기관 간에 공유함으로써
고객들의 금융서비스 이용 편의성을 제고하고
디지털금융 혁신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인프라입니다.

세계 각국은,

“오픈뱅킹” 활성화를 위해
데이터 공유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등
인프라 고도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 오픈뱅킹 구축, 고도화 사례

- (영국) 은행의 데이터 공유시 i)데이터 표시·기록 관련된 표준, ii)공개 API 설계·개발 표준 iii)안전성 측면의 표준 등 마련
- (EU) 제3자인 서비스 제공기관이 금융회사의 계좌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명시하고, 이에 따르는 책임·의무를 명확화
(PSD2 : Payment Services Directive 2 ('18.1월부터 시행))
- (홍콩) 통화당국(HKMA) 등 주도로 은행들이 오픈 API를 통해 금융데이터를 활발히 공유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 마련 등

우리나라도 '19.12월 오픈뱅킹을 정식 출범한 이래,
이용자 수^①가 비약적으로 확대되고,
은행, 핀테크 기업들이
혁신적인 서비스 개발에 이를 적극 활용^②하는 등
디지털금융 혁신을 위한
중요한 지급결제 인프라로 자리잡아 가고 있습니다.

① ('19.12월)1,020만명(중복제외시 440만명) → ('20.9월)5,200만명(중복제외시 2,200만명)

② 원스톱 환전, 여러계좌 연동된 간편결제 충전, 결제대금 선결제 등

정부는,
그간의 성과를 발판 삼아
국민들이 종합적인 금융서비스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명실상부한 지급결제 인프라의 “허브”로
오픈뱅킹을 고도화해 나가겠습니다.

첫째, 오픈뱅킹의 문호를 더 넓게 개방하고, 금융 신산업 및 다양한
금융서비스와 연계성도 강화하겠습니다.

오픈뱅킹은
은행들 간에 “폐쇄적”으로 관리되던
데이터와 지급결제망을
다양한 금융회사, 핀테크 기업들에 “개방” 하여
새롭고 혁신적인 금융서비스 개발에 활용토록 하는 것입니다.

금융투자회사, 상호금융, 카드사 등
여타 금융업권도
순차적으로 오픈뱅킹에 참여*하여
고객들에게 혁신적인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금융투자회사, 상호금융 등은 금년 12월, 카드사는 내년 상반기 중 참여

오픈뱅킹 서비스 대상 계좌*도 확대하여,
보다 충실한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 (현재) 요구불예금계좌 → (개선) 정기예적금계좌 포함(추가확대 검토)

마이데이터, 마이페이먼트와
오픈뱅킹 인프라를 연계하여
고객분석, 상품추천, 계좌이체 등
다양한 서비스가 원스톱으로 제공될 수 있는 환경도 마련하겠습니다.

둘째, 금융회사와 핀테크 부문이 상호호혜적 관계를 가지도록 데이터 공유범위, 수수료 부담 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겠습니다.

오픈뱅킹의 “개방적”인 인프라가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참여하는 기관과
새로이 참여하는 기관 간에
서로 “윈-윈(win-win)”하는 상호호혜적 관계정립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은행이 일방적으로 데이터를 제공하는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핀테크 기업과 새로 참여하는 기관들도
일정수준 데이터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핀테크 기업도
오픈뱅킹망 운영비용 일부를 분담하는 한편,
이용자 증가에 따라
원활한 서비스 제공에 부담으로 작용하는
높은 조회수수료 등은
업계 협의 등을 통해 합리적인 수준으로 인하를 유도하겠습니다.

은행, 핀테크 기업 등
오픈뱅킹 참여기관을 빠짐없이 포함하고,
운영기관, 보안점검기관 등이 참여하는
“공동 협의체”를 신설하여
데이터 공유범위, 수수료 수준 등
참여기관간 이견을 해소하는 기구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오픈뱅킹을 통한 데이터 공유, 자금이체, 송금 등이 안전하게 이루어지도록, 보안도 각별히 신경쓰겠습니다.

오픈뱅킹 확대에 따른
소비자 편의성 제고에 못지 않게,
안전하게 오픈뱅킹을 이용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픈뱅킹에 대한 해킹 등 보안침해에 대비하여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을 고도화하겠습니다.

* FDS : Fraud Detection System

오픈뱅킹에 참여를 원하는 핀테크 기업에 대해서는
사전에 외부 기관을 통한 보안점검을 의무화하고,
참여가 이루어진 이후에도
핀테크 기업의 거래규모, 사고이력 등에 따라
체계적인 보안 관리를 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지속가능하고 안전한 오픈뱅킹 운영을 위해
보안, 정보보호 등에 대한
참여기관의 의무를 명확히 하는
오픈뱅킹 법제화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Ⅲ. 디지털금융 협의회 향후 운영

디지털금융 협의회 논의가
어느덧 중반에 이르고 있는 만큼,
보다 실질적이고 치열한 논의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금융 현장의 생생한 의견을 바탕으로
기존 금융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작업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그간 수 차례 실무협의체 논의를 통해
핀테크 기업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많은 어려움에 대해 들어보았습니다.

많은 핀테크 기업들은
디지털금융 관련 논의가
금융회사와 빅테크 간 갈등이슈에 함몰되어
혁신동력이 위축될 가능성을 우려하며,
디지털 환경의 빠른 변화에 맞게
규제 개선 작업도 지속되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오픈뱅킹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참여기관을 보다 확대하고,
수수료 수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었고,

마이데이터 사업과 관련하여,
주문내역정보를 범주화한다면
개인정보보호 문제를 최소화하고
소비자 편익 제고를 위한 새로운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는
정책적인 제언도 있었습니다.

제도 개선이 보다 투명하고 예측가능하게 이루어지고,
혁신금융서비스 심사 등 과정이 보다 신속히 이루어지기를
희망하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앞으로 핀테크 부문 뿐 아니라
금융회사들이 디지털금융 추진 과정에서 겪는
현장 목소리도 지속적으로 청취하는 한편,

제기된 사항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대안을 검토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디지털금융 협의회」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금융 협의회 “실무 분과” 운영도
보다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금융 협의회 초기에는
전반적인 시장상황, 경쟁질서 등과 관련된 이슈를
중점적으로 다루어 왔으나,

현장의 목소리, 위원님들의 논의 등으로
쟁점과 이슈가 상당부분 구체화*된 만큼,

- * ❶ 금융회사-빅테크 간 거래상대방 관계에서 발생하는 시장질서 이슈
❷ 빅테크 등이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쟁·규제개선 이슈
❸ 기타 디지털금융 토대를 이루는 인프라 개선과제 등

각 이슈별로 논의 일정을 재정비하고,
전문성을 가지신 위원 분들과
기타 외부 전문가, 업계 관계자 등의 참여를 통해
실무분과 회의가
체계적이고 밀도 있게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Ⅳ. 마무리 말씀

“성을 쌓는 자는 망할 것이요,
길을 내는 자는 흥할 것이다.”

- 톤유쿠크(돌궐의 재상) -

디지털 금융으로의 변화의 바람이 거셉니다.

숨가쁜 변화가 이루어지는 환경에서는,
이미 가지고 있는 역량에 안주하기보다는
외부와 소통과 협력을 통해
변화에 대비한 역량을 강화하고,
새로운 혁신에 도전하는 것만이 살 길이라고 믿습니다.

정부는,
금융회사와 빅테크, 핀테크 기업들이
개방적인 자세로 새로운 도전에 임할 때,
이에 따르는 위험요인을 최대한 제거하고,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 개선, 인프라 구축 등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과정에,
디지털금융 협의회 위원님들의 많은 역할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